

## 대전지역 아파트 단위주호 계획에 대한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Survey on Condominium Apartment Dwellers' Consciousness of Unit Plan in Daejeon City

최병숙\*                      강인호\*\*                      박정아\*\*\*                      정미현\*\*\*\*                      장혜선\*\*\*\*\*  
Choi, Byung-Sook                      Kang, In-Ho                      Park, Jung-A                      Jung, Mi-Hyeon                      Jang, Hye-S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sidents' consciousness of the unit plan on condominium apartment and to contribute to develop a condominium apartment unit plan in Daejeon City. This research was performed by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464 data was collected from apartment residents lived in about 85 m<sup>2</sup> unit with 3 rooms and the apartments was limited to the complexes within 1-4 years of the length of building at Yuseong-gu and Seo-gu. By analyzing those data, findings are as follows: 1) Residents thought living room, kitchen and bathroom were important space in a unit plan. They needed a storage function in an entrance and an intermediate room, and Anbang(mater bedroom) so did. 2) L-DK plan type was very popular and the type of front DK with L on the floor plan was preferred. This was unique results. 3) Sub-kitchen was needed for a refrigerator of Kimchi, the location of it was related to a main kitchen and a utility. the third room was needed for library, home office and storage space. 3) Bath-tub in An-bang and showe-booth in public bathroom was preferred. This was same to the popular trend of Korean condominium apartment. 4) The enlargement remodeling of balcony was showed livingroom balcony or personal bedrooms at the time of occupancy. They needed the balcony near a kitchen or an utility to equip a storage facility. Additionally, residents were preferred to their taste rather than a choice of interior concept package services.

Keywords : Condominium Apartment, Housing Environment, Dwellers' Consciousness, Daejeon City, Condominium Residents

주요어 : 아파트, 주거, 주거의식, 대전지역, 아파트 거주자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최근 지방도시의 아파트 건설은 지역건설사에서 대형건설사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평면도 수도권의 평면양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도시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이를 대비 하고자 나름대로 지방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민간아파트 미분양이 2006년 8월 836세대에서 12월 791세대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 4월 1,130세대로 증가하였다. 이에 수도권 기반 대형건설사는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아파트의 분양시점 및 홍보, 설계도 등을 사전 마케팅

조사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에게 맞는 설계 도면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며,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공급 아파트의 공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마케팅의 관점에서 거주자들의 평면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여 단위공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한편, 본 연구는 대전지역 분양 아파트의 팜플렛 분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대전지역 공동주택의 계획특성을 파악하였고(박정아·강인호·최병숙·정미현·장혜선, 2008), 다음 단계로 거주자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 혹은 태도 즉, 주거의식<sup>1)</sup>을 파악하고자 진행한 것이다.

\*정회원(주거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 인간생활 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회원(교신저자), 한남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정회원, 한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위촉연구원

\*\*\*\*\*정회원, 충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1) 주거는 거주자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 및 문화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잠재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것을 주의식 즉, 주거의식이라고 정의한다(윤복자, 지순, 1998). 의식조사에서 의식은 흔히 태도의 의미로 사용된다(동서문화, 1997). 이에 본 연구에서 주거의식은 주거에 대한 거주자의 태도 혹은 관심으로 정의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 단위주호 설계를 할 때 계획가의 입장에서 지역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설계의 정보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위공간에서 거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최근 아파트 평면에서 전실과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의 필요도, 공간 배치 선호도, 안방·부엌·욕실 등의 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도, 개조 및 인테리어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 II. 최근 2000년 이후 분양아파트의 설계 동향

### 1.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분양아파트 계획 특성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주자들은 분양정보를 언론매체에서 가장 많이 획득하고 있다<sup>2)</sup>. 동시에 언론매체의 내용을 통해 보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의 설계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신문 분석(2007년)을 통해 파악한 분양 아파트의 새로운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주상복합아파트를 대상으로 자동화 개념을 담은 최신의 전자기술<sup>3)</sup>, 일반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자의 평면선택<sup>4)</sup>, 길어지는 여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 설비와 조정<sup>5)</sup>, 발코니 공간혜택<sup>6)</sup>, 거실·침실의 가변형 벽체와 세탁실의 이동, 대면형 주방<sup>7)</sup> 및 아일랜드형 부엌<sup>8)</sup>이었다. 평면계획 측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분양건설사는 ‘셀프디자인프로젝트’를 통해 입주자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아파트 평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기후를 고려한 아파트는 기존에 채광을 고려하여 일반화된 3베이 구조에서 햇빛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발코니창 외부에 자동 블라인드를 설치, 천장을 기존보다 30 cm 높게 설계하여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 계획, 온돌마루 보다 대리석 마감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실시하기 이전,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대전시 일반 주민의 소비자 54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신규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7.6%가 아파트 분양에 관한 정보는 언론매체(신문, TV 등)를 통해 입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동아일보(2007). 전자기술. “뚝소리 납니다”. 4월14일자. 대구시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D건설사에서는 새로운 전자기술을 가능한 모두 시도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스마트카드 인식의 현관과 엘리베이터, 거실의 10인치짜리 터치월, 입주자 바이오리듬에 맞춘 실내조명 가변, 주인이 없을 경우 손님 방문목적을 녹화할 수 있는 현관 카메라, 외부에서 가스 및 전기조절, 전자책 도서관 접속이었다. 그 외 화려한 인테리어, 풍부한 수납공간, 천장 모서리의 픽처레일, 주상복합아파트지만 창문을 열 수 있게 하였다.

4) 동아일보(2007). ‘셀프디자인 프로젝트’. 4월14일자. B건설사는 아파트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셀프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5) 동아일보(2007). ‘아열대성 아파트’. 4월14일자. 단지 차원에서는 활엽수 위주의 단지조경, 야외수영장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6) 중앙일보(2007).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4월1일자. P건설사의 분양관련 기사.

7) 서울경제(2007). “가변형 벽체...안락함, 고품격 강조”. 4월26일자. D건설사의 분양주식 아파트 분양기사.

8) 서울경제(2007). ‘아일랜드형’ 부엌 인기. 3월22일자.

발코니공간에 대한 무료 확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공간적 혜택을 제공하는 옵션을 볼 수 있다. 거실, 침실의 가변형 벽체를 통해 공간을 크게 혹은 작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용욕실의 경우 세면대와 욕조, 변기영역을 분리한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샤워와 함께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세탁실을 보조주방에서 공동욕실로 이동을 제시하였다. 주부가 부엌일을 하면서 가족과 대화하므로 심리적 소외감을 줄이고 가족과 친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엌이 단순히 조리,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 공동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바뀌면서 상황에 따라 요리작업대, 식탁, 아이들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형 제품이 확대되고 있고,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2. 선행연구에서 본 분양아파트의 계획특성

수도권 및 대도시의 2000년 이후 분양아파트에 대한 연구결과, 30평형 전체 평면구조의 특성은 3LDK-2Bath, 공동공간과 개인공간 영역의 구분,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의 분리, 3베이, 거실중앙배치가 기본적으로 나타났다(김미선·이수진·이연숙, 2007; 박남희·이준민, 2006; 최은희, 2003). 주호 출입방식은 주출입구의 부엌 또는 후면발코니를 통한 진입의 새로운 사례가 제시되었다(최은희, 2003).

거실, 식당, 부엌공간(LDK)은 L-DK비중이 높았고 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미선 외, 2007; 방정훈·오찬욱, 2004; 정은주·임정은·정소미·조성진·이연숙, 2004; 최은희, 2003). 부엌과 식당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모가 커지고 모든 가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배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패널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정은주 외, 2004). 또 부엌이 거실로 면하는 아일랜드형 계획으로 식당과 부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증가하였다(김미선 외, 2007). 부엌과 같이 가사작업공간의 다용도실은 후면발코니와 혼재되어 위치하였으나 2004-2005년에는 별도로 구획되거나 보조주방이 계획되어 나타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최영은·윤정숙, 2006; 김진영·강순주, 2004).

안방공간은 수납기능이 강화되어 드레스룸, 욕실이 하나의 영역으로 묶인 부부전용공간으로 계획되는 경향이 있었다(김미선 외, 2007; 박남희 외, 2006; 박소원·이경아·이현수, 2005). 욕실은 공용욕실과 부부욕실로 구성되고, 공용욕실은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 유형, 부부욕실은 세면대, 변기, 욕조, 샤워부스, 파우더룸, 드레스룸의 유형이 보편적 경향이 있었다(송윤경·박영순, 2002). 발코니 공간의 경우, 2000년대 들어 2개의 후면발코니 설치하는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최재필·조형규·박인수·박영섭, 2004). 2005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이후 각 방마다 독립적인 발코니 계획과 더불어 방의 규모가 작아져 발코니 확장을 거의 전제하였다(김미선 외, 2007). 제 3공간으로 옷방, 서재,

공부방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테마공간으로 가족실, 실내 온실, 미디어룸, 헬스룸, 재택근무실, 남자만의 공간을 제시하였다(박영순·이현정·김미경·조은숙, 2003; 이연숙·이지영·박남희·방희조, 2004). 한편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실내디자인을 계획하는 경향이 제시되었고,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가구/벽/바다의 컬러선택, 높이조절이 가능한 조리대제공, 전실 및 발코니 공간 등을 거주자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였다(김미선 외, 2007; 성기원·이현정, 2004). 그리고 최병숙(2006)과 박정아 외(2008)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연구에서는 수도권 아파트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음을 밝혔으나, 대전지역의 경우 부엌과 식당이 전면배치하는 것과 공용욕실의 욕조설치 경향은 특징적임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신문기사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계획특성을 정리하면, 거주자 취향을 고려한 평면과 인테리어 선택이 특징적이었다. 평면구조에서는 3LDK-2Bath의 단위 평면, 공동과 개인공간 분리, 거실중앙배치, 3베이, 부엌 혹은 후면발코니를 통한 주호 진입, 부엌 식당의 전면배치 가능성 및 아일랜드형 부엌, 다용도실 별도 계획과 더불어 보조주방 등장, 공용욕실의 변기영역 구분, 세탁실의 공용욕실로 이동, 부부욕실의 욕조 및 파우더룸, 드레스룸 설치 경향, 발코니공간 확대, 제3공간 및 테마공간으로는 옷수납, 개인의 취미나 작업실(공부방, 서재, 재택근무실, 남자만을 위한 공간), 가족의 휴식 및 건강실(가족실, 헬스실, 미디어룸) 계획이 특징적이었다.

### III. 연구 방법

#### 1. 설문조사도구 작성

설문조사 도구를 작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도면분석, 부동산 전문가 및 일반인 의견조사, 대전시에서 공동주택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사무소장 5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의 3회에 걸친 거주자 의식 조사 항목 및 분석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조사항목을 정하여 설문도구를 작성하였다. 조사항목은 응답자 개인 및 가족사항, 주거의 규모사항, 단위주호 계획요소(전체평면구조, 주호 출입공간 배치, LDK공간연결), 단위실 계획요소(안방, 부엌/식당, 욕실, 제3공간), 개조 및 인테리어(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로 하였다.

#### 2. 조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찾으려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유의표집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을 대전지역에서 최근 1-4년 이내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한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 대전시에서 최근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가 많고 집단적인 아파트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 단위 아파트 개발지구(테크노, 노은, 복수지구)를 1차 조

사대상 지역으로 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전 시내에 다수로 분포하는 중규모 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단지를 선정하였다<sup>9)</sup>.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서 연구목적상 건설업체가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용면적 85 m<sup>2</sup>을 중심으로 하되, 3LDK의 공간구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85 m<sup>2</sup> 전후 20-40평형 규모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단지규모에서 평형별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15세대를 선정하였고, 150세대 미만인 경우는 10세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19개 아파트 단지에서 460세대의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선정된 아파트의 통·반장 및 부녀회장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통·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평형별 설문조사 세대수를 공지한 후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통·반장 및 부녀회장이 해당평형 세대에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으며, 연구진이 이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하여 464부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7년 8월 2일~8월 13일(12일간) 사이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응답자 일반사항

#### 1. 개인 및 가족사항

응답자 중에서 30대-40대 연령층(81.3%), 여성(78.9%)의 비율이 높았다<sup>10)</sup>. 그리고 응답 가구는 맞벌이를 하지 않음(71.1%), 월소득이 300-400만원(36.9%), 4인 가족(57.8%), 학령기 자녀 있음(68.8%), 65세 이상 노인 없음(92.8%)의 비율이 높았다<표 1>.

#### 2. 주거사항

응답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로 중단지(80.0%)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분양면적이 110.00 m<sup>2</sup>(33.3평) 120.00 m<sup>2</sup>(36.3평)미만의 아파트가 47.0%,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5 m<sup>2</sup>(25.7평)에 근접한 84.00 m<sup>2</sup>(25.4평)-84.99 m<sup>2</sup>(25.7평)인 아파트가 5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용면적의 비율은 분양면적의 74%미만을 차지한 경우(37.3%)와 74-76%미만(33.9%)으로,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75% 전후 비율에 해당하였다<표 2>.

전용면적은 응답자의 가족 월소득과 가족유형과 분석하면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용면적이 커졌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전용면적 역시 커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11)</sup>.

9) 서구 복수지구에서 4개 아파트단지, 유성구 노은지구에서 8개 아파트 단지, 유성구 테크노지구에서 7개 아파트 단지였다.

10) 여성인 주부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개인 및 가족사항

구분	내용	빈도(%)	계
연령	20대	18(3.9)	459(100.0)
	30대	210(45.8)	
	40대	163(35.5)	
	50대	55(12.0)	
	60대 이상	13(2.8)	
성별	남자	83(21.1)	393(100.0)
	여자	310(78.9)	
맞벌이	맞벌이 함	107(28.9)	370(100.0)
	맞벌이 하지 않음	263(71.1)	
월소득	200만원 미만	21(4.8)	442(100.0)
	200-300만원	113(25.6)	
	300-400만원	163(36.9)	
	400-500만원	92(20.8)	
	500만원 이상	53(12.0)	
가족유형	독신	1(0.2)	453(100.0)
	2인 가족	38(8.4)	
	3인 가족	76(16.8)	
	4인 가족	262(57.8)	
	5인 가족 이상	76(16.8)	
학령기 자녀	있음	253(68.8)	368(100.0)
	없음	115(31.3)	
65세이상 노인	있음	25(7.2)	346(100.0)
	없음	321(92.8)	

표 2. 응답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거사항

구분	내용	빈도(%)	계
단지 규모	중단지(500-1000세대)	371(80.0)	464(100.0)
	소단지(500세대미만)	93(20.0)	
분양 면적	100.00 m <sup>2</sup> 미만	52(11.6)	448(100.0)
	100.00-110.00 m <sup>2</sup> 미만	103(23.0)	
	110.00-120.00 m <sup>2</sup> 미만	211(47.1)	
	120.00 m <sup>2</sup> 이상	82(18.3)	
전용 면적	84.00 m <sup>2</sup> 미만	98(21.9)	448(100.0)
	84.00-84.99 m <sup>2</sup>	268(59.8)	
	85.00 m <sup>2</sup> 초과	82(18.3)	
전용/분양 면적 비율	74% 미만	167(37.3)	448(100.0)
	74-76% 미만	152(33.9)	
	78% 이상	129(28.8)	

V. 단위주호 계획요소

1. 아파트 평면에서 중요시 하는 공간

아파트 평면에서 거주자가 중요시 생각하는 1순위 공간으로 거실(66.2%)의 지적이 월등하게 높았다. 2순위 공간으로 부엌(39.7%)이, 3순위 공간으로는 욕실(16.0%)이 높았다. 중시하는 1, 2, 3순위 공간으로 볼 때 거주자는 개인공간보다 공적(公的)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3>.

11) 가족관련 사항과 주거관련 사항을 교차분석한 결과, 월소득(Chi-square=29.087, df=8, p<.001)과 가족수(Chi-square=14.251, df=6, p<.05)는 전용면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유형은 조사대상 모두에서 4인 가족의 분포가 높았으나, 85.00 m<sup>2</sup> 초과 면적에서는 5인 가족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아파트 평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빈도(%))

구분	1순위 (N=458)	2순위 (N=458)	3순위 (N=455)	총합 (N=464)
안방	32 (7.0)	39 (8.5)	63 (13.8)	134 (29.3)
부엌	101 (22.1)	182 (39.7)	56 (12.3)	339 (74.1)
거실	303 (66.2)	96 (21.0)	34 (7.5)	433 (94.7)
식당	7 (1.5)	30 (6.6)	31 (6.8)	68 (14.9)
다용도실	6 (1.3)	34 (7.4)	67 (14.7)	107 (23.4)
욕실	2 (0.4)	40 (8.7)	73 (16.0)	115 (25.1)
발코니	4 (0.9)	18 (3.9)	64 (14.1)	86 (18.9)
출입구(현관)	3 (0.7)	18 (3.9)	65 (14.3)	86 (18.9)
기타	-	1 (0.2)	2 (0.4)	3 (0.6)

중요시 생각하는 1, 2, 3순위 공간을 종합하면, 거실(94.7%), 부엌(74.1%)이 높았고, 이것은 중요도 1, 2순위에서 높게 파악된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적이 높은 안방(29.3%)은 3순위의 욕실 공간과 그 순서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고, 욕실(25.1%)과 다용도실(23.4%)이 다음 순서로 중요시 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2. 현관 전실에 대한 요구

현관 혹은 전실공간에 대한 필요 기능을 파악한 결과 수납과 보관 요구로 집약되었다<표 4>. 즉, 신발, 우산, 운동용품 등의 수납에 대한 필요도가 4.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모차, 자전거 보관공간에 대한 필요도 3.89점, 정원이나 화분 진열에 대한 필요도가 3.64점으로 나타났다.

표 4 현관, 전실 공간 요구(빈도(%))

현관/전실요구	필요도	필요 (5점)	약간 필요 (4점)	보통 (3점)	약간 불필요 (2점)	불필요 (1점)	계	평균 점수 (SD)
수납(신발, 우산, 운동용품 등)	377 (84.7)	43 (9.7)	21 (4.7)	-	4 (0.9)	445 (100.0)	4.77 (0.62)	
불건을 놓거나 신발 신을 때 앉을 수 있는 긴의자	55 (12.8)	92 (21.3)	88 (20.4)	75 (17.4)	121 (28.1)	431 (100.0)	2.73 (1.40)	
유모차, 자전거 보관공간	189 (42.7)	111 (25.1)	76 (17.2)	35 (7.9)	32 (7.2)	443 (100.0)	3.89 (1.24)	
장독공간	39 (9.2)	69 (16.4)	88 (20.9)	75 (17.4)	151 (35.8)	422 (100.0)	2.46 (1.36)	
정원, 화분진열	145 (33.5)	112 (25.9)	96 (22.2)	35 (8.1)	45 (10.4)	433 (100.0)	3.64 (1.30)	

3. 선호하는 L, D, K 배치 방식

공적공간의 중심이 되는 L, D, K 공간의 배치방식을 다음의 표5와 같이 구분하여, 선호를 파악하였다<sup>12)</sup>.

표 5. 선호하는 L, D, K 배치방식(N=445)

L-DK 배치방식-부엌식당 분리		
구분	일반형	남향형
빈도(%)	138(31.0)	161(36.2)
구분	LD-K 배치방식 부엌 분리형	LDK배치방식 부엌거실개방형
빈도(%)	57(12.8)	89(20.0)

그 결과 거주자들은 거실에서 부엌과 식당이 분리되는 L-DK 배치 방식을 선호하였다(67.2%). LDK 배치방식의 선호는 20.0%, LD-K 배치방식의 선호는 12.8%로 나타난 결과로 보면, 부엌과 식당은 서로 통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DK 배치 방식 중 부엌과 식당 공간이 평면의 후면부에 배치하는 일반형의 선호도가 31.0%, 부엌과 식당공간이 평면의 전면부에 배치하여 남향 부엌이 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이 3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한 아파트의 48개 평면을 분석하였을 때, L, D, K공간이 평면의 중앙부에 배치된 경우가 37사례(77.1%)였고, L-DK형 배치가 34사례(70.8%)인 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거주자는 보편적 유형(일반형)과 달리 L-DK 남향형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본 조사연구에서 매우 독특하게 보여진 결과로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경향(박정아의 2008; 정은주 외, 2004)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제시된 도면은 L, D, K 공간 전체는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그러나 L-DK 남향형의 경우 거실과 DK 구분에서 일반형과 달리 통로로 구분되는 공간의 손실이 없고, 이 공간이 DK공간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DK공간 크기를 일반형에 비해 남향형에서 크게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엌 식당과 인접하여 발코니 공간이 명시된 점 등도 이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해석으로는 L-DK 배치(일반형)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단순히 새로운 평면의 방

12) 설문조사과정에서 제시한 L, D, K의 배치형식 도면은 대전시 최근 분양아파트 평면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박정아의 2008) 공간배치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전체 공간크기는 동일하게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향을 선호하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거주자의 개인 및 가족사항, 주거사항 등의 내용과 L, D, K 배치방식과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나, 관련성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 VI. 단위실 계획요소

### 1. 안방공간

#### 1) 안방에 대한 태도

거주자가 평소 안방에 대해 생각하는 의견을 파악한 결과<표 6>, 안방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넓은 곳’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부부만 사용하는 곳’, ‘장롱이나 불박이장이 꼭 있어야 하는 곳’, ‘침대가 꼭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안방에 대한 태도에서 거주자들은 안방을 부부 공간(77.5%), 장롱이나 불박이장이 있어야 하는 곳(79.0%)이라는 의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거주자는 안방을 절대적인 부부침실공간(86.2%)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적은 사례이지만 필요에 의해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전용하는 경우(3.00%)가 있었다.

표 6. 안방에 대한 거주자 태도(빈도(%))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합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	140(35.3)	257(64.7%)	397(100.0)
집에서 가장 넓은 곳	54(13.7)	341(86.3%)	395(100.0)
부부만 사용하는 곳	328(77.5)	95(22.5)	423(100.0)
장롱이나 불박이장이 꼭 있어야 하는 곳	331(79.0)	95(22.5)	423(100.0)
침대 꼭 있어야 하는 곳	276(68.7)	126(31.3)	402(100.0)

#### 2) 안방공간구성에 대한 의견

거주자들에게 안방의 공간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표 7>,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수납을 크게(49.6%)’를 요구하는 의견이 높았다. 이것은 앞서 안방을 장롱이나 불박이장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7. 안방 공간구성 계획의 의견

구분	빈도	%
현재상태가 좋다	132	29.1
다른곳을 줄이더라도 욕실을 크게	46	10.1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수납을 크게	225	49.6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침실을 크게	51	11.2
계	454	100.0

안방의 공간구성 계획에 관한 의견을 면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표 8>.

그러나 거주자 개인 및 가족사항과 안방공간구성 의견을 교차 분석한 결과<표 8>, 월소득, 연령, 학령기 자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은

표 8. 면적 및 개인, 가족사항에 따른 안방공간 구성 의견 빈도(%)

면적, 개인 가족사항	안방공간 구성 의견					계
	침실, 욕실, 수납공간(드레스룸)의 안방구성	현재 상태가 좋다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욕실을 크게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수납을 크게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침실을 크게	
전용면적	84 m <sup>2</sup> 미만	21 (21.6)	13 (13.4)	50 (51.5)	13 (13.4)	97 (100.0)
	85 m <sup>2</sup> 수렴	78 (30.0)	26 (10.0)	127 (48.8)	29 (11.2)	260 (100.0)
	85 m <sup>2</sup> 초과	29 (35.8)	5 (6.2)	39 (48.1)	8 (9.9)	81 (100.0)
	계	128 (29.2)	44 (10.1)	216 (49.3)	50 (11.4)	438 (100.0)
	Chi-square=6.106 (N.S, df=6)					
분양면적	100 m <sup>2</sup> 미만	9 (17.3)	6 (11.5)	27 (51.9)	10 (19.2)	52 (100.0)
	100-110 m <sup>2</sup> 미만	29 (29.0)	16 (16.0)	43 (43.0)	12 (12.0)	100 (100.0)
	110-120 m <sup>2</sup> 미만	61 (29.8)	17 (8.3)	107 (52.2)	20 (9.8)	205 (100.0)
	120 m <sup>2</sup> 초과	29 (35.8)	5 (6.2)	39 (48.1)	8 (9.9)	81 (100.0)
	계	128 (29.2)	44 (10.0)	216 (49.3)	50 (11.4)	438 (100.0)
Chi-square=13.951 (N.S, df=9)						
월소득	200만원 미만	4 (20.0)	7 (35.0)	5 (25.0)	4 (20.0)	20 (100.0)
	200-300만원	32 (28.3)	13 (11.5)	56 (49.6)	12 (10.6)	113 (100.0)
	300-400만원	46 (28.6)	13 (8.1)	85 (52.8)	17 (10.6)	161 (100.0)
	400-500만원	23 (26.4)	5 (5.7)	47 (54.0)	12 (13.8)	87 (100.0)
	500만원 이상	21 (39.6)	7 (13.2)	22 (41.5)	3 (5.7)	53 (100.0)
	계	126 (29.0)	45 (10.4)	215 (49.5)	48 (11.1)	434 (100.0)
	Chi-square=25.012* (df=12)					
연령	20/30대	54 (24.2)	28 (12.6)	113 (50.7)	28 (12.6)	223 (100.0)
	40대	51 (32.1)	9 (5.7)	84 (52.8)	15 (9.4)	159 (100.0)
	50대 이상	27 (39.7)	9 (13.2)	25 (36.8)	7 (10.3)	68 (100.0)
	계	132 (29.3)	46 (10.2)	222 (49.4)	50 (11.1)	450 (100.0)
Chi-square=13.437* (df=6)						
학령기 자녀	있음	73 (29.4)	19 (7.7)	131 (52.8)	26 (10.5)	248 (100.0)
	없음	36 (32.1)	16 (14.3)	42 (37.5)	18 (16.1)	112 (100.0)
	계	109 (30.2)	35 (9.7)	173 (47.9)	44 (12.2)	361 (100.0)
Chi-square=9.423* (df=3)						

\*p<.05

‘수납을 크게’의 요구를 따르고 있었으나, 300-5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그 요구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200만원 미

만인 경우 ‘욕실을 크게’, ‘침실을 크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50대 이상은 ‘현재상태가 좋다’와 ‘욕실 크게’의 요구가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의 경우 욕실, 수납을 크게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고, 20-40대는 ‘수납을 크게’를 요구하였다. 5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 상태의 안방구성이 좋다’와 ‘욕실 크게’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수납을 크게’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령기 자녀가 없는 경우는 ‘현재 안방구성이 좋다’와 ‘욕실 크게’, ‘침실 크게’ 비율이 높았다.

2. 부엌 및 식당공간

1) 아일랜드 작업대에 대한 선호

부엌공간의 신경향인 아일랜드형 작업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면 <표 9>와 같다. 아일랜드형 작업대를 선호하는 경우(292명)에게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실과 개방되기 때문에 가족과 대화하면서 음식을 할 수 있어서’가 6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새로운 개념의 부엌이라 신선할 것 같아서(12.9%), 주방 작업이 편리할 것 같아서(10.5%)로 나타났다.

표 9. 아일랜드형 작업대 선호도

아일랜드형 작업대 선호도	선호 (5점)	약간 선호 (4점)	보통 (3점)	약간 비선호 (2점)	비선호 (5점)	계	평균 점수 (SD)
빈도 (%)	177 (38.5)	115 (25.0)	81 (17.6)	37 (8.0)	50 (10.9)	460 (100.0)	3.72 (1.34)

아일랜드형 작업대를 선호하지 않는 응답자(87명)에게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부엌의 음식 냄새 그릇 등이 보여 싫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5%, ‘조리중 음식냄새가 퍼져서’가 18.8%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부엌 및 식당을 일상적인 조리·식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부 개인일(58.0%), 가족대화(55.4%), 이웃과 대화모임(51.7%)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부엌 및 식당에서 아이들과 놀이나 숙제돌보기는 18.2%로 낮았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회수는 거의 매일이 29.7%, 주 3-4회 정도가 33.2%, 주 1-2회 정도가 3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엌 및 식당이 주부일 및 가족을 위한 공간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일랜드형 부엌을 선호하는 이유 중 가족대화라는 점에서 현재 부엌 식당의 사용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신개념으로만 아일랜드형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김치냉장고 위치의 선호

1990년대 말 등장하기 시작한 김치냉장고는 현재 보조주방에 두는 빈도가 가장 많았고, 앞으로 희망하는 곳도 보조주방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표 10>. 현재 김치냉장고 위치와 미래의 위치 간에는 유의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조주방에 김치냉장고를 두는 경우

미래에도 보조주방에 두고 싶어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부엌, 다용도실 각각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보아도 미래에는 보조주방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 현재 김치냉장고 위치에 따른 미래 김치냉장고의 위치 빈도(%)

김치냉장고 위치	미래 앞으로 희망하는 곳			
	부엌	보조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계
현재 두는 곳	부엌	39 (56.5)	10 (14.5)	69 (100.0)
	보조주방	48 (19.7)	27 (11.1)	244 (100.0)
	다용도실 (발코니)	23 (25.3)	67 (33.0)	91 (100.0)
	계	91 (22.5)	246 (60.9)	404 (100.0)

Chi-square=30.351\*\*\* (df=4)

\*\*\*p<.001

3. 욕실 시설설비 선호

각 욕실에서 욕조와 샤워부스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선호경향을 분석한 결과, 안방욕실과 공용욕실의 선호 시설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안방욕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용욕실의 욕조 선호가 높았고, 안방욕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용욕실의 샤워부스 선호가 높았다. 두 욕실 간에 서로 다른 시설설비의 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안방욕실-욕조, 공용욕실-샤워부스의 선택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욕조 선택은 기존 연구의 안방욕실에서 욕조설치 경향과는 동일한 것이었으며, 대전지역 아파트 팜플렛 분석 연구결과(박정아 외, 2008)와는 차이가 있었다.

표 11. 안방욕실의 선호시설 설비에 따른 공용욕실의 선호 시설 설비 빈도(%)

욕실의 선호 시설설비	공용 욕실		계
	샤워부스	욕 조	
안방 욕실	샤워부스	158 (60.8)	260 (100.0)
	욕 조	115 (89.2)	128 (100.0)
	계	217 (55.9)	388 (100.0)

Chi-square=89.142\*\*\* (df=1)

\*\*\*p<.001

4. 제3의 공간에 대한 요구

방 1개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어떤 용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파악하였다<표 12>.

거주자는 서재나 재택근무실을 34.1%로 요구하였고, 옷방, 계절 용품 등의 수납시설 공간을 29.9%로 요구하였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8.1%로 낮았고, 이것은 곧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표 12. 제3의 공간에 대한 요구

방1개의 용도를 바꿀시 원하는 공간	빈도	%
서재, 재택근무실	155	34.1
미디어룸/AV룸	42	9.2
수납시설(옷방,계절용품)	136	29.9
웰빙실(건강관리실, 취미실)	85	18.7
현재 상태 그대로	37	8.1
계	455	100.0

VII. 개조 및 인테리어

1. 발코니 확장 요구와 희망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 중에서 확장한 발코니를 파악한 결과<표 13>, 거실과 안방이외의 방은 응답자의 과반수이상 이 확장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부엌과 안방은 응답자의 과반수이상 이 확장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거실 발코니의 확장 빈도가 높았고(70.5%), 다음으로 작은방(58.5%)과 중간방(54.4%) 순으로 나타났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공간은 부엌(85.0%)과 안방(78.4%)의 빈도가 높았다. 발코니를 확장한 시기를 파악하면, 입주 후 바로(80.1%)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코니 공간 이외 아파트 내부 생활공간을 개조한 곳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86.3%는 개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들의 개조가 발코니 공간 확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현재와 미래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공간(빈도(%))

구분 및 내용	안방 발코니	중간방 발코니	작은방 발코니	거실 발코니	부엌 발코니	원하지 않음
현재	확장	131 (54.4)	141 (58.5)	170 (70.5)	36 (15.0)	
	확장하지 않음	189 (78.4)	110 (45.6)	100 (41.5)	71 (29.5)	204 (85.0)
	계	241 (100.0)	241 (100.0)	241 (100.0)	241 (100.0)	240 (100.0)
앞으로	9 (19.6)	18 (38.3)	24 (51.1)	32 (68.1)	14 (29.8)	1 (2.2)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공간을 파악한 결과<표 13>, 거실과 작은방 발코니의 확장을 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방과 부엌의 확장을 원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 결과는 앞서 발코니 확장개조와 같은 결과임을 볼 때, 거주자들은 거실과 작은방 발코니를 위주로 확장을 원하지만, 안방과 부엌은 원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 다용도실 및 발코니 개선사항

부엌/식당 인접 다용도실용 발코니를 개선한다면<표 14>,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납설치에 대한 요구(44.1%)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탁, 쌀, 식품류

저장 및 김치냉장고 설치, 세탁시설, 쓰레기 임시보관시설 등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면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표 14. 다용도실 발코니 개선사항

개선 사항	깔끔하게 정리 수납 설치	가스레인지 설치 보조 주방	쌀, 식품류 저장 및 김치냉장고 설치	세탁시설(손빨래싱크, 세탁기, 건조기 등)설치	쓰레기 임시 보관 시설	중복 응답	계
빈도 (%)	193 (44.1)	29 (6.6)	66 (15.1)	68 (15.5)	61 (13.9)	21 (4.8)	438 (100.0)

4.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아파트 분양시 바닥/벽/천장 마감 및 조명 인테리어를 패키지로 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선택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표 14> 내 취향대로 따로 하고 싶다가 48.5%였고, 선택하겠다가 37.7%로 나타났다. 패키지 선택을 할 경우 적용 공간을 파악한 결과, 거실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안방, 자녀방, 부엌공간은 선택 비율이 5%내외로 낮았다.

표 15.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여부(빈도(%))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	선택하겠다	내 취향대로 따로 하고 싶다	선택하지 않겠다	계
빈도 (%)	167 (37.7)	215 (48.5)	61 (13.8)	443 (100.0)

표 16. 연령에 따른 인테리어 스타일 선호 경향(빈도(%))

연령	스타일							계
	친환경, 내추럴	현대적, 감각적	고품격	전통, 한국적	실용, 기능적	기타		
20/30대	69	57	12	6	76	7	227	
	(30.4)	(25.1)	( 5.3)	( 2.6)	(33.5)	( 3.1)	(100.0)	
40대	48	38	10	9	55	2	162	
	(29.6)	(23.5)	( 6.2)	( 5.6)	(34.0)	( 1.2)	(100.0)	
50대 이상	25	10	6	9	17	-	67	
	(37.3)	(14.9)	( 9.0)	(13.4)	(25.4)		(100.0)	
계	142	105	28	24	148	9	456	
	(31.1)	23.0%	( 6.1)	( 5.3)	32.5%	( 2.0)	(100.0)	

Chi-Square=20.356\* (df=10)

\*p<.05

거주자들이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실용, 기능적인 스타일(32.5%)과 친환경, 내추럴 스타일(31.1%), 현대적, 감각적 스타일(23.0%)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5>. 20, 30, 40대 연령층은 실용, 기능적 인테리어 스타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친환경, 내추럴 스타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VIII. 논의 및 결론

이상의 거주자 460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대전지역 거주자는 거실, 부엌, 욕실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므로, 이를 고려한 평면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엌과 욕실을 안방보다 중요시하고 있는 경향은 부엌과 거실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가족 공용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 분양아파트에서도 부엌과 욕실에 대한 신개념 대안은 이들 공간이 새롭게 부각되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전반적인 경향은 대전지역 거주자에게도 같았음을 알 수 있다.

현관과 전실에서는 수납, 보관공간(자전거, 유모차)의 계획 필요도가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거실, 부엌, 식당의 공적공간배치에서 L-DK형을 선호하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나, DK공간을 평면의 전면부에 배치하여 남향 부엌이 되는 경우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독특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대전지역 아파트의 팜플렛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전면 배치의 부엌, 식당 비율이 약 11%였으나, 거주자 주거의식 조사에서는 36.2%로 훨씬 높았다. 따라서 대전지역 아파트 평면계획시 전면부에 부엌 식당을 배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안방은 중요하고 큰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부침실, 장롱이나 불박이장이 있어야 하는 곳, 침대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인식한 점으로 볼 때, 권위, 상징의 공간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부부 공간으로 계획을 접근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00-500만원 소득자인 경우, 20-40대인 경우 그리고 학령기가 있는 경우 안방공간에서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수납을 크게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수도권 아파트는 30평형대에서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설치 경향이 제시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주자들이 팜플렛, 모델하우스 등의 분양 정보를 검토했음을 가정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안방공간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납공간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부엌공간 역시 수도권 아파트 경향과 같이 거실과의 개방으로 가족 간 대화할 수 있는 아일랜드형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를 두기위한 공간으로 보조주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수납설치와 식품류 저장, 김치냉장고, 세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실(발코니)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즉, 부엌공간은 보조주방, 다용도실로 그 기능이 세분화하는 계획을 요구하였고, 이 역시 수도권 아파트와 같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아일랜드형 부엌은 면적이 커지는 점, 보조주방, 다용도실은 부엌일의 영역을 확장하므로 동선이 길어지는 점이 있으므로 제한된 아파트 단위공간에서 이러한 거주자 선호를 반영 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의 공간으로는 서재, 재택근무실, 수납시설(옷방, 계절용품)의 요구가 높았고, 이는 대전지역 팜플렛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박정아 외, 2008)에서 제시된 제3의 공간(서재, 재택근무실, 수납시설) 계획정보와 같은 결과였다. 즉, 팜플렛에 제시되는 공간계획의 정보는 거주자 공간의 식과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급자는 팜플렛에 분양아파트의 설계정보를 충분히 명시하는 것이 거주자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거주자는 발코니공간을 입주 후 바로 확장하며, 거실과 작은방, 중간방의 발코니를 주로 확장하였다. 이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이를 거주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현상이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에 대해 거주자는 '취향대로'의 선호가 높으므로, 분양사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몇 가지 패턴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패키지를 적용할 경우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적용공간은 연구결과에 따라 거실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함이 필요하다. 수도권 선행연구(김미선 외, 2007; 성기원 외, 2004)에서 제시된 인테리어 선택옵션 경향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현관과 전실,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제3의 공간에서 수납의 해결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평면적 해결이 가장 시급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평면 설계 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 아파트의 계획 특성을 거주자 주거의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이나, 수도권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계획 특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전지역 팜플렛 분석(박정아 외, 2008)에서도 수도권 아파트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전주지역 아파트의 평면적 특성 분석(최병숙, 2006)에서도 수도권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계획 시 건설사가 지역의 독자성에 기초하지 않고 기 개발된 아파트 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그대로 적용해 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독특하게 전주, 대전지역 아파트 모두 부엌의 전면배치 경향이 나타났고, 전주의 경우는 욕실이 평면의 전면에 배치된 사례도 제시되었다. 거실과 방이 평면의 전면배치의 중심이 되어왔으나, 이처럼 대전지역의 부엌, 식당 전면배치는 주거동 형식의 변화로 다양한 방배치 형식이 제시되는 흐름에 맞추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욕실의 시설 설비 역시 안방욕실에 욕조를 설치하고 공용욕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수도권 아파트 경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2002-2006년 분양 아파트 팜플렛 분석에서는 안방욕실의 경우 샤워부스, 공용욕실의 경우 욕조 설치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거주자의 의식은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지역 거주자의 주거의식은 수도권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세탁실이 욕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새로운 경향을 생각할 때, 욕조가 위치하는 욕실은 계획시 가사작업영역과

연계성을 검토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파악한 바,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지역 아파트의 계획 특성으로 제시된 부엌 식당의 전면배치, 욕조 설치공간이 선행연구와 왜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김미선 · 이수진 · 이연숙(2007), 판교신도시의 브랜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통해 본 최근 아파트 계획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9(1), 137-142.
2. 김진영 · 강순주(2004), 아파트 주부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의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2), 53-60.
3. 박남희 · 이준민(2006), 브랜드 아파트의 평형별 평면계획 내용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3), 53-62.
4. 박영순 · 이현정 · 김미경 · 조은숙(2003), 아파트 상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소비자 트렌드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 129-136.
5. 박소윤 · 이경아 · 이현수(2005), 공동주택의 드레스룸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7(2), 44-47.
6. 박정아 · 강인호 · 최병숙 · 정미현 · 장혜선(2008), 대전지역 공동주택의 분양팜플렛에 나타난 계획특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11-20.
7. 방정훈 · 오찬욱(2004), 전면 2실형과 3실형 아파트의 평면 특성 및 민족도 비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2), 31-35.
8. 성기원 · 이현정(2004), 최근 수도권 모델하우스에 나타난 공간구성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2), 72-75.
9. 송윤경 · 박영순(2002), 아파트 모델하우스 욕실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2, 36-46.
10. 이연숙 · 이지영 · 박남희 · 방희조(2004), 아파트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6), 91-98.
11. 정은주 · 임정은 · 정소미 · 조성진 · 이연숙(2004), 소비자 소집단 워크숍을 통한 주부들의 공간요구사항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2), 88-91.
12. 최병숙(2006), 전주시 아파트 주거의 평면적 특성 분석.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3), 102-110.
13. 최영은 · 윤정숙(2006), 공동주택 다용도실 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1), 169-172.
14. 최은희(2003),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평면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년 이후 분양되어 2001년 이후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 134-142.
15. 최재필 · 조형규 · 박인수 · 박영섭(2004),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1966년~2002년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6), 155-164.
16. 동서문화(1997), Pascal 세계대백과 사전. 21권 12375, 동서문화사.
17. 윤복자 · 지 순(1998), 기초주거학. 18, 신광출판사.

집수일(2009. 4. 1)

수정일(1차: 2009. 7. 24, 2차: 9. 22)

제재확정일자(2009. 9. 29)